



주한 벨라루스 대사관

보도자료

인신매매 근절 우방 그룹 (Group of Friends United Against Human Trafficking)의 UN 미팅

일자: 2013 년 10 월 01 일 (월)

보내는 사람: 주한 벨라루스 대사관

홍보 담당: 드미트리 도로세비치

02) 2237-8171

인신매매 근절 우방 그룹 (Group of Friends United Against Human Trafficking)의 UN 미팅

벨라루스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조율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블라디미르 마케이 벨라루스 외교부 장관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제 4 회 인신매매 근절 우방 그룹 미팅에서 이 같이 밝혔다.

벨라루스는 최근 5 년간 유럽, 아시아, 아프리카, 남미의 22 개국으로 구성된 우방그룹의 활동을 총괄하고 있다.

벨라루스의 초청으로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본 미팅에 참석했으며 이 중에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(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– UNODC), 유엔 개발계획 (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– UNDP), 유엔 인구기금 (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– UNFPA), 유엔 여성기구 (UN Women), 국제이주기구 (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– IOM),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(Office of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), 유엔 난민고등판무관(Office of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)등 관계자가 참석했다.

마케이 장관은 우방그룹 회원국 및 국제기구가 인신매매 근절하고 및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효율적인 대책을 실천해나가야 한다고면서 그 중 하나로 '국제 인신매매 피해자 존엄의 날 (International Day of Dignity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)' 제정을 제안했다.

마케이 장관은 또한 유엔 계획 및 산하기구, 그리고 각 국제기구가 벨라루스 발의로 유엔 총회가 채택한 ‘세계 인신매매 근절 이행계획’ (Global Plan of Action against Human Trafficking) 실천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.

벨라루스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가 환영하고 그 효율성이 입증된 세계 이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마케이 장관은 덧붙였다.

미팅 참석자들은 벨라루스의 의견을 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국가적, 지역적 및 전 세계적 차원에서 회원국 및 국제기구 간의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.

인신매매근절 우방그룹
제 4 회 장관 미팅
2013 년 9 월 26 일, 뉴욕

블라디미르 마케이 벨라루스 외교장관 연설

유엔총회 고위급 미팅에서 '세계 인신매매 근절 이행계획'의 채택은 현대판 노예 체제 근절을 위한 세계 차원의 대책 구성을 의미하였고 이 분야에서의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을 확정했습니다.

본 이행계획의 전면적이고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첫째, '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기구간 조정그룹' (Inter-Agency Coordination Group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– ICAT)의 조정 주체인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제 69 회 유엔 총회에서 '세계 인신매매 근절 이행계획' 로드맵을 발표해주시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ICAT 측은 인신매매 문제를 활동 분야로 제정해야 합니다. 둘째,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유엔의 인신매매 분야 주요 기관으로 국가간 인신매매 대책 조정 및 성공 사례에 관한 정보 공유를 위한 각국 인신매매 코디네이터 간의 정기적 대화 메커니즘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.

셋째, 인신매매의 일반적인 유형 뿐만 아니라 노동 착취, 장기, 조직 및 세포 매매, 아동 음란물 유통 등 인신매매의 새로운 유형 및 근원 제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

넷째, 인신매매가 지속 가능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정되어 인신매매 방지 대책이 2015 년 이후 발전 아젠다에 포함 되어야 됩니다.

다섯째,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들의 인권 보장 및 보호를 위해 '국제 인신매매 피해자 존엄의 날 (International Day of Dignity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)'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

여섯째, 3 년 주기의 세계이행계획 평가 체제를 도입하여 2016 년 제 70 회 유엔 총회에서 이 평가 결과를 소개할 것을 제안합니다.